

# 朝鮮時代 兒童의 孝行教育

## The Conduct of the Filial Education of Children in the Choson Dynasty

柳 點 淑\*

Ryu, Jeom Sook

### ABSTRACT

This documentary study investigated the background, content and methods of the filial education of children in the Choson Dynasty; that is, the ways in which filial conduct was taught so that the child learned manners and learned to assist parents in everyday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upper class(sonbi) and ranged from 7 or 8 to 13 or 14 years in Korean age.

The Confucian view of nature, ethics and the family system emphasized filial duty during the Choson Dynasty. The contents of filial education were the fundamentals of filial conduct, such as daily greetings, participation(in family events), and an affectionate and respectful attitude towards parent. The method for filial education was that parents and instructors were to be good model in everyday life so that children got accustomed to good conduc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filial conduct of the Choson Dynasty to today's life, but its basic spirit, that is, loving and respecting human beings, is still invaluable for modern times. This spirit may be applied to childhood education today by amending some out-of-date contents, and the filial ethos universalized in daily life could become a prescription for today's chaotic society.

### I. 研究의 意義 및 目的

本稿에서는 『小學』類인 조선시대의 아동교재를 통하여 당시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시 하였던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자녀관계도 여러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계, 즉 부모에 대한 자녀의 道와 義이었던 孝에 한정하기로 한다.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달라졌다 하더라도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삶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禮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여 道義不在와 悖倫之境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환경과괴나 인성타락 등으로 이미 그 한계와 병폐가 회자되는 서구문화에서 보다 동양문화, 바로

---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우리의 전통 윤리 속에서 그 이치와 지혜를 찾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는 학문의 목적을 하늘로 부터 부여받은 밝은 덕(선)을 밝히고, 자신의 밝은 덕으로 타인의 덕도 닦아 주며,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밝은 도덕 세계로 만드는데 두었울 뿐 아니라, 정치 또한 유교를 중심으로 한 덕치주의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本稿는 자녀로 하여금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고민하였던 조선시대의 儒人(선비)들이 아동에게 일상생활로서 또는 장래의 부모교육을 위한 준비로서 효를 어떻게 교육하였는지 알아보고, 그 기본되는 정신과 태도를 오늘날의 자녀교육에 적용함으로써 가정이 화목해지고, 개인과 사회가 보다 여유있고 순화될 수 있는 현실 치유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통사회에서의 효행교육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의 자녀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Ⅱ. 孝行教育의 背景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려고 한다면, 자식은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 효도하려는 것이 부모와 자식간의 일반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親子간의 관계는 효성과 자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부자관계는 단지 정서적인 애착관계로만 유지된 것이 아니고 儒家의 자연관, 윤리관, 가족제도 등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이고도 기능적인 특별한 관계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서양의 부모자녀관계처럼 友人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상하질서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계인 자정은 隱藏되었고,

반대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관계인 효성은 강조되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효가 특히 발달하도록 영향을 끼친 자연관이란, 자연을 중시한 儒人들의 사고방식이 친자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유교 자체가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과 가깝게 지내는 농사꾼의 철학이므로(車柱環, 李章佑, 1988, p. 84) 부모자녀관계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본 것을 말한다. 즉 중력이 작용하는 자연계에는 自上落下하는 것이 절대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慈情은 자연의 법칙으로 저절로 생기나, 위로 올라가는 孝誠은 노력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자정은 種族保存의 본능이므로 자정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효성은 인간도덕의 원칙이므로 장려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자정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효도는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비유하면 자정은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고 효도는 상승하는 불과 같아서, 물은 자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지만 불은 인간이 살려야만 존재하고, 계속해서 보살피지 않으면 꺼져버리므로, 불에 해당되는 효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자녀가 老親을 奉戴하고 있는 모양으로 ‘孝’字를 만들어(柳正基, 1975, p. 156) 생활화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유교의 윤리이론적인 측면에서 강조된 효를 살펴보자.

공자의 가르침은 ‘仁’ 한 字로 집약된다고 한다. ‘仁’이란 ‘人’字와 ‘二’字의 組合으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근본은 무엇인가. 공자에 의하면 “군자는 근본을 찾으려고 애쓴다. 근본이 선 후에야 도가 생긴다. 효제는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라는 『論語』學而편의 말에서처럼 유교의 실천윤리는 결국 孝와 悌에 귀결되며, 그 중에서도 효가 핵심을 이룬다. 儒學의

학문방법이 획일적이지 않고, 피교육자의 인성과 주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둔 점이 효의 실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직분과 인격적 수양에 따라 요구된 효의 내용이 여러 경전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孝經』에 의하면 天子의 효는 백성에게 德教를 베푸는 것이며, 諸侯의 효는 社稷을 보전하여 人民을 和合하게 하는 것이며, 卿大夫의 효는 家廟를 守奉하는 것이며, 士者의 효는 祭祀를 奉供하는 것이 근본이고, 마지막으로 庶人의 효는 天의 道를 쓰고 地의 利를 分해서 근신하고 절용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柳正基, 1975, p. 157; 金在萬, 1988, p. 156에서 재인용)으로서 효도는 부모의 육체를 봉양하는 것에서부터 天下를 平治하는 것까지 직분에 따라 다양하다.

『禮記』祭儀篇에 의하면 효도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 小孝는 用力하는 것이고, 中孝는 用勞하는 것이며, 大孝는 不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인간에게 ‘仁’ 즉 사랑을 가르치는 데는 孝보다 나은 것이 없고 나무 한 그루를 자르거나 짐승 한 마리를 죽이는 데도 適時에 하지 않으면 불효라고 가르쳐서 孝의 은택이 인간은 물론이고, 초목이나 금수에게까지 고루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효는 곧 孝行을 의미한다.

유교 이론에 따르면 효는 상승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것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면 圓線을 그리는 데, 그 원 속의 것은 전체를 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게로 상승하는 효심은 하강하면 형제자매를 포용하고, 또 연장해서 조부모에게까지 상승하는 효심은 하강하면 叔姑와 從班을 포용하게 되니 그것을 더욱 더 연장하면 모두 다 一體로 포용이 되어서 원만하게 되므로 효도는 도덕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부모의 一身만을 잘 봉양하는 것은 최소의 효 또는 하위의 효이

고 천하 만인에게까지 발전시켜 인류를 博愛하는 것이 최고의 효 또는 최상의 효가 된다. 뿐만 아니라 儒教 五倫의 다른 측면, 즉 忠·信·別·序도 사실은 孝의 변형으로 본 것이다(金玉姬, 1985, p. 67). 따라서 효를 참으로 잘 행할 수 있는 자는 여타의 인간관계도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敬天의 경지에까지 이른다고 본 것이다.

효는 그 정도나 범위에서 이상과 같이 크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生時의 봉양에만 그치지 않고 死後까지 연장되었는데, 『論語』學而篇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한 바를 살펴볼 것이니, 3년 동안 아버지의 길을 고치지 아니하면 가히 효자라 이를 수 있다.”고 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효는 자녀가 노친을 받들고 있는 글자의 의미처럼 부모를 생시에 善事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유가에서는 효 역시 범위나 시간상으로 볼 때 自近至遠하는 자연의 입장에서 보았으므로 “所厚者에 薄한 者는 所薄者에 厚할 이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善事하지 않으면서 남의 부모에게 厚한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생각했고, 생시에 잘 봉양하지 않았으면서 喪祭에는 잘 차리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효에는 세 가지 조건도 있는데 말하자면 尊親, 즉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弗辱, 즉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能養, 즉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仁을 위주로 한 도덕교육에 역점을 두었던 조선사회에서는 도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의 훈련을 동몽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했고, 그 정도도 가장 낮은 단계, 즉 小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家父長的 直系家族制度和 ‘집’의 관념에서 효를 살펴보자.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딴 곳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토지 위에서 대대로 정착하여 살았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평등이라는 관념보다는, 항상 할아버지, 자기,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유대를 중시하는 가운데 上·下·長·幼의 질서를 강조하게 되었다(車柱環, 李章佐, 1988, p. 298). 물론 농경사회에서 유지되는 인간관계의 질서는 누대로 중첩된 친·인척이 상부상조하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현대 산업사회에서 적용되는 기계적인 법의 질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情感의 질서이었다. 上·長은 慈愛하고 下·幼는 恭敬해야 하였는데,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대하는 공경의 禮가 바로 孝나 悌로 발달하였던 것이다.

토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집)은 좁게는 한 집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하나의 정치세력을 이룰 만큼 큰 집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 속에 포함된 많은 인원을 다스리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장권이 요구되었다.

家長的 家族內에서 家長인 父는 아버지인 동시에 가장이기 때문에 아들의 윤리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생계에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나 가족원 통솔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해서 자기를 낳아준 생명의 은인이며, 교육자이며,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준 후원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들은 가장의 후계자가 되어 그 지위를 물려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言行으로 최대의 존경을 표해야 하고, 부모 생전에 시중 및 부양으로써 안락하게 모셔야 하며, 사후에는 장례와 제례를 정성들여 치를 뿐 아니라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 그 위에 家의 존속을 위하여 조상을 잘 모시고 다음 후계자를 생산 교육하는 데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효에 포함되

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여 父女關係는 아들처럼 집을 계승할 후계자와 가장이라는 구조적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정서적인 애착관계에만 놓이게 된다(劉永珠, 1987, pp. 72-73). 그러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잘 유지해서 부모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에(여성의 경우 시가에) 봉사하고 공로도 세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라는 것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 다만 父系家族의 특성 때문에 출가할 딸에게는 친정부모에 대한 효보다 며느리로서 시부모에 대한 효를 더욱 강조하였음을 다음과 같은 여성교육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달과 딸이 비록 다르나 부모 숭고롭기는 다갓고 아달과 며느리 비록 다르나 효도로 공경 함은 갓타니 효도 논일씩 힘실의 근원이니 오히려녀 조덕의 머리되는 지라(女四書, 女範, 孝行篇).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농경문화적 자연관과 거기에서 발달된 儒家的 사고에 부합시키면서 넓게는 모든 인간에 대한 博愛의 실천으로, 좁게는 해당 가계의 유지와 존속을 위하는 방편으로 효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 Ⅲ. 孝行教育의 內容

인륜을 중시하는 유가에서는 오류이 효를 근본으로 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어른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친구간에 신의가 있고,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보고, 어릴 때부터 효의 조건에 맞추어 바른 행동으로 습관들이도록 교육하였다. 왜냐하면 효는 곧 덕이고, 덕은 행위

로 나타나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동몽에게 가르쳤던 부모심김, 즉 효행교육의 내용이 어떠한하였는가를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柳點淑, 1991, pp. 63-73).

• 문안인사

하루의 일과 중 시작과 끝은 모두 부모에 대한 문안인사였다. 이 문안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교재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효자의 아버이 섬김은, 닭이 처음 울면 양치질하고 세수하고서 부모의 처소에 나아가 기운을 나직히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으신 옷이 추운가 더운가를 묻고, 무슨 음식을 잡숫고자 하는가를 여쭙어 보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 드린다. 밤에는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드린다(童蒙先習, 總論).

이상과 같이 자식이 새벽에 첫 닭이 울면 일어나 먼저 자신의 용의 부터 단정하게 갖춘 후 부모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문안인사를 드리고, 음식과 의복과 침구가 적당한지의 여부를 여쭙어 보며, 하루의 일과가 끝난 저녁에는 부모의 침소를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남녀의 부모 섬기는 예법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권이 집과 동리에 거의 국한되어 있던 당시에는 이러한 생활이 비단 효라는 문제를 떠나서 가정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개인의 정신적인 집중을 위해서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시중들기

부모님께 시중드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부모의 세수 시중에 대해서 동몽교재를 보면,

세숫물을 바칠 때에는 연소자는 대야를 받들고 연장자는 물을 받들고서 물을 부어 세수하시기를 청하고 세수를 마치시면 수건을 드린다.

5일이 되거든 물을 데워서 목욕하시기를 청하고 3일이 되거든 머리를 감겨드리되, 그 사이에도 얼굴에 때가 끼면 쌀뜨물을 데워 세수하시기를 청하고, 발에 때가 끼면 물을 데워서 발을 씻으시기를 청한다(小學: 明倫).

라고 하여 연소자와 연장자가 함께 부모의 세수시중을 들고 날짜를 정하여 목욕도 하시도록 공손히 청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음으로 음식 시중에 대해서는,

무릇 반찬을 존장의게나수거든문지피와상물가자서셀고씩근연후에두손으로식괴를받드라서그우에두고괴명을반다시말여서깨끗하게하며고기와나뭇잎을반다시차례로벌이되존장의질기고조와하여야조먹는바를보와서그압해움기갓가이하고존장이쉬라명하신즉물너와겻해서고먹기를맞치시거든나아가갓으며피시고먹이라명하신즉음해자리에나아가서먹으되반다시존장의향한바를보와서먹지아니신자를감히먹지아니하며장차맞치신즉급히맛칠것이니라(養正篇: 饗饌).

라고 하여 음식을 시중드는 데 있어 부모의 식성과 기호에 따라 장만하여 올리고 요리하는 데에도 달고 부드럽게 하여 드시기 좋도록 정성껏 마련하며, 상차리는 것도 형식을 따라서 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자식이 부모 곁에 앉아서 음식을 권하며 부모가 맛을 본 뒤에 물러나오

록 가르치고 있다. 또 “밥그릇·국그릇·술잔·간장그릇은 남겨 주신 음식을 먹을 경우가 아니면 감히 쓰지 않으며, 늘 드시는 음식은 남겨 주신 것이 아니면 감히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小學: 明倫, 明父子之親)라고 하여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 편의와 공경을 극진히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공경은 『論語』爲政편의 “요즈음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能히 養함을 이르는 모양인데, 개나 말도 모두 길러지는 것이니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경이 효행의 절대적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물질적인 제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공경이 반드시 함께 요구되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드는 시중을 보면,

부모의 가래침과 콧물을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부모의 갖과 띠에 때가 묻었거든 젓물을 타서 씻기를 청하며, 의복에 때가 끼었거든 젓물을 타서 빨기를 청하며, 옷이 터지거나 찢어졌거든 바늘에 실을 꿰어 꿰매기를 청한다. 나이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섬기며, 신분이 천한 이가 존귀한 이를 섬길 때는 다 이 예절을 좇을 것이다.

부모가 허물이 있거든 기운을 가라 앉히고 얼굴빛을 기쁘게 하고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할 것이니, 간하여도 만일 받아 들여지지 않거든 자기의 孝敬하는 마음을 한층더 일으켜서 부모가 기뻐하시거든 다시 간할 것이다(小學: 明倫, 明父子之親).

와 같이 부모의 차림과 행동이 허술하거나 적당치 못하여 남에게 威儀를 잃지 않도록 보살펴 드

릴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부모가 병환으로 病席에 계실 때의 侍病에 대해 『弟經』에서 인용해 보면,

부모가 질병을 앓으시거든 장성한 아들은 머리를 빗지 않으며, 다남에 활개치지 않으며, 말할 때 농담을 하지 않으며, 琴瑟을 타지 않으며, 고기를 먹되 맛이 못하여질 만큼 먹지 않으며, 술을 마시되 얼굴빛이 붉도록 마시지 않으며, 잇몸이 드러나도록 웃지 않으며, 역정내어 꾸짖지 않는다. 그러다가 질병이 나으시거든 평상시로 되돌아간다(弟經: 曲禮).

라고 하여 언어·행동·관심 모두를 看病에 집중하도록 요구하였다.

#### · 품행과 태도

부모에 대한 품행과 태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출입에서부터 응답이나 수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근본이 되는 것은 공경하여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 드리며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동몽교재를 통하여 살펴보자.

먼저 『弟經』에 의하면,

대개 자식 된 자는 나갈 때는 반드시 여쭙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뵈고……

아버이가 늙었을 때에는 외출한 후 목적지를 바꾸지 않고, 돌아오는 시간은 그 정한 바를 넘겨서는 안된다.

아버지가 명하여 부르시거든 (빠르면서도 공경하게) “예(唯)”하고 (느리면서도 무관심하게) “예(諾)”하지 않으며 손에 일거리를 잡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식사 중일 때에는 음식을 뱉어버리고 뛰어야 한다(弟經: 玉藻).

부모·시부모의 처소에서는 감히 구역질·한숨·채채기·기침·하품·기지개·기우듬히 서기·기대기·결눈질을 하지 않으며 또 침을 뱉지 않고 콧물을 흘리지 않는다(弟經:內則).

라고 하였고, 『士小節』에는

가장 나쁜 것은 자신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서도 어른의 꾸지람과 벌에 승복하지 않고 사납고 독살스러운 성질을 제 마음대로 들어내며, 자기 잘못을 변명하여 스스로 훌륭한 체하고 어른에게 거역하여 그 노여움을 도발해서 그를 마구 때려 살점이 터져 은혜와 의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李德懋, 1985, p. 289).

라고 하였다.

父母에 대한 孝誠을 이렇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不孝하였을 때의 비난이나 처벌도 이에 못지 않았다. 그래서 孔子는 “五刑에 속하는 죄가 3천가지이지만 그 죄가 불효보다 큰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불효한다고 하는가? 이를 알기 위하여 『孟子』의 離婁章下를 보면 世俗의 五不孝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게울러 부모공양을 돌보지 아니함이 첫째이며, 장기·바둑·술을 좋아하여 부모공양을 돌보지 아니함이 둘째이며, 보화와 재물을 좋아하며 妻子를 위하여 부모공양을 소홀히 함이 셋째이며,耳目의 욕구를 좇아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네째이며, 용맹을 좋아하여 사납게 싸워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째 불효이다(金赫濟校閱, 1985, p. 227에서 재인용).

이는 앞에서 밝힌 효의 구분에서 보면 부모의

一身만 잘 봉양하는 庶人의 효 또는 小孝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자녀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最下位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儒家에서 효를 강조하고 불효를 징계한 것은 인간관계를 유교적 입장에서 유지하여 온화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지 父權을 만들어서 자식으로 하여금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爭子가 있어야 無禮를 감행하지 못하고, 直言하는 아들이 있어야 망하지 않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바를 알아서 하는 것만이 효가 되는 것이다”(柳正基, 前揭書, p. 158)라고 한 표현처럼 “피가 흐르도록 매질을 당하면서도” 부모의 불의와 악덕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하는 것도 또한 효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통사회의 아동교육은 부모에 대한 문안과 시중, 품행과 태도 같은 일상생활에서 은혜와 감사, 봉사와 헌신, 경애와 배려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되고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의 아동교육에서 효를 이렇게 강조한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유교에서의 효도란 그 중심사상인 ‘仁’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었기에 인간관계에서는 물론, 百行중에서도 효를 根本 또는 根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金益洙, 1989, p. 3).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 때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刑法上으로도 가장 큰 문제가 될 만큼 효에 대해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 Ⅳ. 孝行教育의 方法

유학 교육은 仁道の 교육이고, 실제로는 孝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전통사회의 儒人들은 아동에게 이것을 어떻게 교육하였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말하면 부모가 어릴때 부터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가르쳤다는 것이

다.

일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효를 가르쳤다는 것은 한자의 ‘孝’字나 ‘教’字 자체에서도 알 수 있다. ‘孝’라는 글자는 ‘老’의 略字에 ‘子’字를 합하여 아들이 부모인 노인을 업듯이 받들고 있는 모습 또는 事上の 도리를 나타내고, ‘教’字는 이러한 ‘孝’字의 모습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宋昌基, 1978, p. 158). 즉 아버지의 모든 행위가 자식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하여 교육에 있어 모델제시적인 면을 ‘教’字로 표시하였는데, 아들이 본받는 아버지의 평소생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시 하였던 것이 효였으므로, 효를 기준으로 하여 ‘教’字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부모에 대한 효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당시의 서적들을 통하여 관찰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安鼎福의 『下學指南』과 尹晳植의 『日用指訣』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시간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孝가 잘 드러나고 있다.

寅時(오전 4~6시)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단정히 한 후 부모의 처소에 가 밤새의 안부를 살핀다. 卯時(오전 6~8시)에는 다시 의관을 정돈하고 부모의 처소에 가 부모가 일어나셨으면 배알하고 방을 깨끗이 청소한 후 새벽음식을 드리고 모시고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눈다. 辰時(오전 8~10시)에는 다시 부모의 처소로 가 찬이 잘 갖추어져 있는 가를 살펴보고 아침 진지를 권한다. 午時(낮 12~2시)에는 다시 부모의 처소로 가 안부를 묻고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후 점심 진지를 공양한다. 申時(오후 4~6시)에는 저녁식사가 다 준비되었음을 고평하며 부모의 처소로 가 진지를 권하고 식사가 끝

나시면 물러나온다. 그리고 酉時(오후 6~8시)에는 다시 부모의 처소로 가 방의 따뜻함과 차가움, 창문에 틈이 있는 가를 점검하고 이부자리를 펴드린 후 물러난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부모 앞에 모이게 되는데, 특히 부모를 모시고 담화할 때는 어른, 아이 그리고 남, 여가 자리를 나누어서 열대로 앉게 하여 古今人의 이름답고 착한 言行을 강론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웃지 않으며 남의 과실을 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가 취침하시려 하면 배알하고 물러나오거나 혹은 모시고 잠을 잔다(柳點淑, 1991, pp. 148-150).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묶어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등 12등분으로 구분하였을 때 양책 공히 부모를 위한 시간이 6회나 배분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선비들이 효의 실천에 얼마나 충실하려 하였나를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본보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효를 직접 가르쳤음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효는 단지 자신의 부모에게만 善事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우애있게 지내는 것, 그리고 집밖의 어른들에게 공경하게 대하는 것까지도 모두 효의 범위로 포함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효를 가르치는 사람도 부모가 주이지만 스승, 친구, 손님도 역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적(聖賢)까지도 또한 본보기로 삼았다.

부모, 즉 어른들에 대한 효는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런 행동으로 습관들이도록 지도하였다. 그 내용은 앞 절에서 이미 밝힌 외에도 부지기수이다. 예를 들면,

어른의 衣冠으로 장난하지 말고, 어른이 앉고



높은 자리에 앉거나 눕지 말며 어른 앞에서 머리·입·코·귀속의 불결한 것을 노출하지 말며, 어른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지 않는다(李德懋, 1985, p. 306).

라고 하여 어른의 의복·기거하는 장소·음식 등에 대해 구별하여 받들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어른의 의관으로 장난하지 않고, 옷을 보관하는 장소와 용기도 구분하였으며, 어른이 거처 하시거나 접반하시는 장소에 자식이 감히 앉고 눕지 않으며, 자신의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른에게 나태하거나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도록 가르친 것은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하는 예의를 지극히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또 손님을 보면 반드시 절을 하고 어른을 만나지 못할 때는 어디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를 여쭙었다가 어른이 들어오시면 삼가 보고하고 노인인 경우에는 부축하여 마루에서 오르내리시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자신의 손수에게 행하여 보임으로써 자녀들도 따라서 하도록 자연스럽게 가르쳤던 것이다.

格物致知와 居敬이라는 유교의 두 축이 조선에 와서는 退溪 등에 의해 居敬쪽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굳어졌다. 그리하여 이론보다 행위를 더 중시하게 됨에 따라(民族文化推進會, 1977, p. 133) 아동교육에서도 知育보다는 德育에, 그리고 의식보다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려는 교육내용도 어릴 때부터 습관적인 행동으로 몸에 배이도록 철저히 훈련시키었다. 특히 효행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랑에 빠져 어려서는 교만하고 게으르며, 자라서는 흉악하고 사나운 버릇을 더하게 되므로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엄격함'이란 사나운 말이나 힘으로 자유를 구속하여 꺾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릴 때부터 孝悌恭順의 예절을 가르치고, 법도에 알맞는 행동을 받아들이게 하며, 조금도 방종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서 좋은 습관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金鍾權, 前揭書, p. 68).

이와 같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예는 행위로 나타내야 하므로 생활교육을 표방하였고, 그 시기는 발달단계상 가소성과 흡수성이 풍부하며 잡념이 없는 幼少時 부터 가르쳐서 확고하게 틀잡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이동 스스로 배우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모델을 통하여 곧바로 배우게 함으로써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 V. 孝行教育의 現代的 適用 方案

앞에서 논의한 효의 특성상 효행교육을 오늘날의 자녀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윤리회복이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몇 가지 방안을 들어보면 첫째는 가족 생활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3, 4대가 한집에서 같이 살고 친척들 또한 이웃에서 모여 조석으로 만나며 상부상조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정감이 자연스럽게 솟아났고 효행교육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거대도시화와 여성의 취업 또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으로 변하였고, 개인의 익명성과 자유화가 보장됨에 따라 가족의 증발이나 왜소화도 가져왔다(정자환, 1995, p. 20).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과 공경의 실천인 효행은 유지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패륜의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가정이 최초의 의의있는 평생교육의 場(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록 현실생활에서 많은 난점이 있다 하더라도 효행교육은 일차적으로는 가정이 맡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를 직접 모시거나 혹은 자주 방문하여 효도하고 동기와 친족간에 우애하며 부부도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영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아가서는 이웃이나 친척들과도 인정을 나누며 원만히 생활하는 가운데서 효행은 저절로 습득된다고 본다.

둘째는 교육의 인간화를 들 수 있다. 우리의 선인들은 자녀를 기를 때 인간됨에 비중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만들까에 고민하였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지식교육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이를 테면,

子弟가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친히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 여가가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라는 『論語』學而篇이 상식에 속하였는 것만으로도 知育보다 德育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입시라는 국가정책에서 부터 지식 중심의 교육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도 덕육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육 일변도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훌륭히 길러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만들려면 지적인 능력만으로는 결코 부족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덕을 반드시 겸비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효행에 대한 말을 자주 들려 주고 타이르고 좋은 책도 읽게 하여 윤리의식이 심중에 굳건히 자리잡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교육이 가정에 국한되어서는 개인이 직업 중심의 사회생활을 하는 현실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국가의 문교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학교 및 사회교육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지식과 행동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나아가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밑거름도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는 적당한 모델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효행을 체험함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전통사회에서는 집에서 부모가 할머니·할아버지를 받드는 것이라든지 집안에 일가 친척들이 많이 드나 들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도 친척들이 모두 手上一에 공손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효행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부모들의 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피로하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기가 쉽지 않고 친척들의 방문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행과 같은 덕성교육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보다는 모델을 통해서 본받는 身教이 효과적이므로 부모 또는 上位者가 身先수범해야 한다. 즉 자녀의 교육에 앞서 먼저 부모 스스로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수양하며, 효행에 항상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를 교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각자의 가정 형편에 맞게 계획을 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저녁 시간에 부모님끼리 행하는 예의를 실습한다든지 또는 매일이 어려우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때때로 방문하여 효행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도 따라하게 한다든지 관혼상제 등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든지 하는 것 등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효행을 본보이는 교육이 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자녀교육과 병행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權五倬譯解(1982). 禮記. 서울:弘新文化社.
- 金星元譯(1986). 小學. 서울:明文堂.
- 金玉姬(1985). 朝鮮朝社會의 女四書를 中心한 女性敎訓書의 內容分析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金益洙(1989). 韓國思想과 現代社會. 서울:士林院.
- 金在萬(1988). 孝의 현대 敎育적 이해. 서울:대광문화사.
- 金鍾權(1984). 名家의 家訓. 서울:家庭文庫社.
- 金忠烈(1994). 21세기와 東양철학. 녹색평론, 17호.
- 金赫濟校閱(1985). 孟子. 서울:明文堂.
- 柳黈淑(1991). 朝鮮後期 兒童敎材의 內容分析.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柳岸津(1990).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敎育. 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 柳正基(1975). 東洋思想事典. 大邱:大韓公報社.
- 劉永珠(1987). 新家族關係學. 서울:敎文社.
- 民族文化推進黨(1977). 國역퇴계집 I. 서울:경인문화사.
- 成百曉(1993). 論語集註. 서울:傳統文化研究會.
- 孫人銖(1988). 韓國儒學思想과 敎育. 서울:大光文化社.
- 宋昌基(1978). 中國古代女性倫理觀. 台灣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 安鼎福. 下學指南, 影印本.
- 尹最植. 日用指訣, 影印本.
- 李基奭 譯解(1982). 童蒙先習. 서울:弘新文化社.
- 李德懋(1985). 士小節. 金鍾權(譯). 서울:明文堂.
- 李明基(1985). 仁의 敎育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 珥(1966). 擊蒙要訣. 張聖澤(譯). 강릉:문왕출판사.
- 丁淳睦編陔(1983). 韓國儒學敎育資料集解( I ): 童蒙敎育 篇. 서울:學文社.
- 金正國. 警民篇, 影印本.
- 班昭. 女誡, 影印本.
- 劉氏. 女範, 影印本.
- 鄭經世. 養正篇, 影印本.
- 曹守初. 筆語, 影印本.
- 丁若鏞. 弟經, 影印本.
- 정자환(1995). 가족해체시대의 선택과 전략. 녹색평론, 20호.
- 車柱環·李章佑(1988). 中國文化概觀. 서울:韓國放送通信大學 出版部.